용하였으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는데, 門部王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文室智努麻呂眞人**(후무야노치누노마히토)

文忌寸馬養이 백제 왕인계인 것처럼 이 文室智努麻呂眞人도 같은 文氏이므로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物部古麿**(모노노베노코마로), **物部廣足**(모노노베노히로타리), **物部刀自賣**(모노노베노토지메), **物部道足**(모노노베노미치타리), **物部龍**(모노노베노타츠), **物部歲德**(모노노베노토시토코), **物部眞根**(모노노베노마네), **物部眞島**(모노노베노마시마), **物部秋持** (모노노베노야키모치), **物部乎刀良**(모노노베노오토라)

『万葉集』 卷第20에는 天平勝寶七歲乙未二月, 筑紫에 파견된 諸國의 防人들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이 物部氏들은 바로 그 防人들 중의 일부이다. 그런데 中西 進는

>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시대, 欽明朝에서 齊明朝에 걸쳐 兩土에 관련된 인물은 결코 적지 않다. 欽明 2년 7월 이후의 書紀에 散見되는 紀臣弥麻沙는 奈率로 百濟朝에 종사한 사람이지만 書紀의 注에 의하면 紀臣某가 韓婦를 취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 더구나 여기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 주목되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弥麻沙는 4년 4월에 돌아오지만 同年 9월에 온 百濟使의 한 사람인, 物部麻奇牟는 15년 12월의 記事에 의하면 東方의 領物로서 軍事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여기에서는 連이라는 姓을 가지고 있어, 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
> 5년 2월에 보이는 百濟使의 한 사람, 物部用奇多(6년 5월紀에도 보인다), 翌 3월에 보이는 物部奇非, 15년 2월의 物部烏도 同族일 것이다. 15년 12월紀에는 百濟 救援軍의 한 사람에 物部莫奇委沙奇라는 이름이 보이며 筑紫인이라고 하므로 일본에 있어서의 그들의 거주지는 筑紫이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神龜 元年 5월의 例의 渡來氏族 賜姓 속에 物部用善이 物部射園連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의 후손임이 틀림없다.[104]

---

103) 佐伯有淸, 위의 책, p.246.

104)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p.108.

라고 하였다.

百濟使의 한 사람인 物部麻奇牟·物部用奇多, 百濟 救援軍의 한 사람인 物部莫奇委沙奇는 『日本書記』의 기록만을 가지고 보면 일본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당시 渡倭人들 중에는 僞倭의 경우가 있고, 이 物部가 連 姓을 가지고 있으므로 渡倭系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제 구원군으로 참여한 경우들을 보면 백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尾張連 某**(오하리노므라지소레가씨)

『新撰姓氏錄』 山城國神別에 "尾張連 火明命子天香山命之後也"[105] 라고 하였다. 連 姓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星野五彦도 귀화인[106]으로 보았는데, 그 출자는 알 수 없다.

尾張連 某가 渡倭人이라면 **尾張少咋**(오하리노오쿠히)도 같은 尾張氏이므로 渡倭人으로 볼 수 있다. 星野五彦도 귀화인[107] 이라고 하였으나 역시 출자를 알 수 없다.

• **磐余伊美吉諸君**(이와레노이미키모로키미)

星野五彦은 귀화인이라고[108] 하였고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109]이라고 보았다. 한인계로 보고자 한다.

• **拔氣大首**(누키노케타노오비토)

이 拔氣大首에 대하여 土屋文明은

> 혹은 拔氣를 氏로 보고, 大首를 姓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혹은 拔이 氏, 氣大가 名, 首가 姓이 아닐까. 拔은 이 외에 보이지 않으나 중국의 拓跋을 拓拔로도 쓰므로 귀화족이며, 후에 改姓해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氣大는 神名, 地名에 보이므로 人名에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110]

---

105) 佐伯有清, 앞의 책, p.242.
106)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07)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108)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109)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110) 土屋文明, 『万葉集私注』 卷第五(筑摩書房, 1982), p.111.

라고 하였고, 澤瀉久孝도 土屋文明의 설을 인용하는 것[111]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渡倭人으로 보되, 중국의 拓跋과 관련하여 중국계로 보았다.

• **史氏大原**(시시노오오하라)

星野五彦은 漢 귀화인[112]으로 보았고, 山本信三은 大典. 田邊, 垂水, 御立의 三氏를 제외하고 다른 史氏는 모두 蕃別外來種이라고 하고는 韓族 또는 準韓族[113]이라고 하였다. 上田正昭는 "거기에는 史 혹은 史部 등의 渡倭人에 의해 이미 모국에서 한자를 조선어의 신택스에 의해 배열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은 것을 일본어의 문자표기와 문자표현에도 적용한 프로세스가 생각된다. 일본열도의 지식층이 한자와 중국어와 조선어를 배워, 도래인이 일본어를 소화하여 吏讀風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교섭 속에, 口頭傳承의 세계에 속한 歌謠가 문자로 정착한 歌詞의 세계를 생성한다."[114]고 하여 한인계로 보았다. 史氏이므로 역사편찬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舍人吉年**(토네리노키네)

舍人은 『新撰姓氏錄』 未定雜姓, 河內國에 "百濟國人利加志貴王之後也"[115]이라고 되어 있다.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116]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의 기록을 따라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舍人娘子(토네리노오토메)에 대해 伊藤 博은

> 天武紀에 壬申亂의 공신의 한 사람으로서 舍人造糠虫이라는 인물이 보이며 10년(681) 12월에 連의 姓을 받고 다음해 정월에 小錦下의 位를 부여받았다. (中略) 그 配下에 있은 舍人部(安閑紀 二年四月條 參照) 출신인가? 額田王과 함께 天智天皇의 죽음을 애도한 여성으로 舍人吉年이 있다.(二 152) 관계가 있을 것이다."[117]

111)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九, p.183.
11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13)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114)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3.
115) 佐伯有淸, 앞의 책, p.347.
116)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117) 伊藤 博, 『萬葉集全注』 卷第一, pp.240-241.

고 하였고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118]으로 보았다.

舍人氏이므로 舍人吉年과 마찬가지로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 **山口忌寸若麿**(야마구치노이미키와카마로)

少典山氏若麻呂라고 하였는데 上田正昭는 渡來系의 歌人[119]으로 보았고,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120]이라고 하였으며, 山本信三은 阿知使主의 후손에 山口姓이 있는데 韓族 또는 準韓族[121]이라고 하였다. 阿知使主의 후손이라면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 **山上憶良**(야마노우에노오쿠라)

『万葉集歌人事典』은 『新撰姓氏錄』의 右京皇別下에 "菜田朝臣 大春日朝臣同祖 天足彦國忍人命之後也 日本紀合 山上朝臣 同氏(祖イ) 日本紀合"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山上氏는 光昭天皇의 황자 天足彦國忍人命을 조상으로 하고 귀화족의 從屬에 의해 형성된 菜田氏系로부터 分脈한 一氏族이라 생각된다."[122]고 하였다. 中西 進은 天智朝의 亡命 도래인 侍醫 憶仁의 子[123]라고 하였다.

星野五彦도 백제 귀화인[124]이라고 하였으며, 上田正昭도 渡來人[125]으로 보았다. 그리고 필자는 이외의 山上憶良의 출자에 관한 제학설을 살펴보고 작품 성격으로 미루어 한인계 작가임을 밝힌 바가[126] 있다.

山上臣(야마노우에노오미)은 山上憶良의 자식이라는 설이[127] 있는데, 山上憶良이 백제계라 추정되므로 山上臣도 백제계가 될 것이다.

---

118)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119)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12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21)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122)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323.
123) 中西 進, 『万葉集事典』, p.280.
124)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25)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3.
126) 李妍淑, 「韓人系 作家의 万葉集에 미친영향-山上憶良을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集』(한국문학회, 1997.12).
127)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322.

• **山田史土麿**(야마다노후히토히지마로)

上田正昭는 "山田史는 「新撰姓氏錄」(右京諸蕃, 河內諸蕃)에 전하는 것처럼 도래계의 씨족이며, 그 一族에는 山田史御方(三方)과 같은 學藝에 뛰어난 인물이 있었고 또 天平20년 9월경에는 越中守 大伴家持의 측근에 있었던 웅장으로서 山田史君麻呂가 있었다."[128]라고 하였다. 그런데 山本信三은 도래인 중 山村己知部를 논하면서 "欽明天皇 때 백제 귀화인 己知部를 倭國 添上郡 산촌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그 후예"[129]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山田史土麿도 같은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山田史君麿(야마다노후히토키미마로)에 대해서도 上田正昭는 도래인계[130]로 보았다. 山田史土麿와 같은 姓이므로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 **薩妙觀 命婦**(세치묘우관노묘오부)

薩妙觀은 『續日本紀』 神龜元年 五月辛未(十三日)條에 "從五位上薩妙觀賜姓河上忌寸"이라 하였다. 忌寸 姓을 받고 있으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는데 中西 進은 당나라 포로와 함께 백제군에게 잡혀서 일본에 건너가 音博士로 활약하게 된 신라인 薩弘恪의 딸[131]로 보았고, 川上富吉도 上田正昭도 "薩妙觀은 도래계의 여인이었다. (中略) 薩弘恪은 唐人이고, 薩仲業은 新羅國使이어, 薩妙觀이 중국계의 도래인인가 조선계 도래인인가 명확하지 않지만, 薩藝生이 신라에서 일본에 온 사람인 것처럼 아마도 신라계의 도래인"[132]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를 따라 신라계로 보고자 한다.

• **三方沙弥**(미카타노사미)

上田正昭는 "山田史는 「新撰姓氏錄」(右京諸蕃, 河內諸蕃)에 전하는 것처럼 도래계의 씨족이며, 그 一族에는 山田史御方(三方)과 같은 學藝에 뛰어난 인물이 있었고 또 天平20년 9월경에는 越中守 大伴家持의 측근에 있었던 웅장으로

128)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1.
129)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4.
130)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1.
131) 中西 進, 『万葉の時代と風土』, pp.118-119.
132)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서 山田史君麻呂가 있었다."[133]고 하였다. 山田史御方과 동일인이라면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三野連石守(미노노무라지이소모리)

『新撰姓氏錄』 攝津國諸蕃에 "三野造 出自百濟國人布須麻乃古意彌也"[134]라 하였다.

星野五彦은 三野連石守의 **三野岡麻呂**(미노노오카마로)를 백제 귀화인[135]으로 보았다. 백제계이다.

• 上古麻(카미노코마로)

'上'의 성은 『新撰姓氏錄』 左京, 右京, 攝津, 和泉의 諸蕃에 上村主가 있고 모두 廣階連과 同祖이라고 되어 있는데 廣階連은 "出自魏武皇帝男陳思王植也"[136]라고 하였다. 또 右京諸蕃下에 上勝(마사)이 있는데 "出自百濟國人多利須須也"[137]라고 되어 있다. 河內國諸蕃에는 上曰佐(오사)가 있는데 "出自百濟國人久尒能古使主也"[138]라고 하였다.

星野五彦은 백제나 漢의 귀화인[139]으로 보았으며, 中西 進은 百濟系 渡來人인가[140]라고 하였다.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生石村主眞人(오후시노스쿠리마히토)

生石村主眞人에 대하여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귀화인계의 사람인 듯[141]하다고 하였으며, 星野五彦도 귀화인[142]으로 보았다. 귀화인에게 내린 姓인 村主

133) 上田正昭, 위의 논문, p.31.
134) 佐伯有淸, 앞의 책, p.318.
13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p.29-30.
136) 佐伯有淸, 앞의 책, p.294.
137) 佐伯有淸, 위의 책, p.303.
138) 佐伯有淸, 위의 책, p.328.
139)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40) 中西 進, 『万葉集事典』, p.226.
141)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47.
14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가 붙어 있으므로 渡倭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石上朝臣堅魚**(이소노카미노아소미카츠오)

安都宿禰年足은 『續日本紀』 養老三年五月癸卯(十五日)條에 "正八位下阿刀連人足等三人並賜宿禰姓"[143]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 左京神別上에 "阿刀宿禰 石上同祖"[144]라고 하였다. 阿刀連人足이 連 姓이어 渡倭人임을 알 수 있는데 이 阿刀連人足과 石上氏가 동족이라고 하였으므로 결국 石上氏도 渡倭系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大系 『日本書記』에서 "物部氏의 直系라고 하는 石上氏가 大化 以後 번성하여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은 推古朝 당시의 정치적 정세와 관계가 있는가?"[145]라고 하였는데 物部氏가 백제계이므로 石上氏도 백제계일 것이다.

石上卿(이소토카미노마에츠키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渡倭系인 阿刀連人足과 동족인 石上氏이므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石上乙麻呂(이소노카미노아소미오토마로), **石上朝臣宅嗣**(이소노카미노아소미야카츠구)도 마찬가지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石川朝臣廣成**(이시카와노아소미히로나리)

石川氏에 대해 中西 進은 石河라고도 하며 天平寶字六(762) 九, 年足薨傳에 蘇我臣牟羅志의 증손, 石足의 아들[146]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石川朝臣年足이 蘇我臣牟羅志의 증손이어 蘇我氏의 계보라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中西 進은 다시

> 井上氏가 「僞倭」의 예로 든 것은 「大倭木滿致」이었으나 그가 蘇我氏의 조상인 蘇我滿智가 아닐까 하는 추정은 널리 알려진 바다. 그러나 그의 父 木羅斤資는 신라를 토벌했을 때, 신라의 부인을 취하여 滿智를 낳았다고 한다. 任那에도 힘을 미친 武將이었는데 「일본의 영토인 任那의 권력자이며 일본의 위세를 빌어 백제에서 세력을 잡았다」(古典大系 「日本書紀」 上, 補

143) 「續日本紀」 前篇, p.76.
144) 佐伯有清, 앞의 책, p.213.
145) 大系 『日本書紀』 上 補注 3-16, p.580.
146) 中西 進, 「万葉集事典」, p.199.

注 9-39) 백제인이 그였다. 斤資는 例의 神功遠征譚에 활약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子 滿智는 應神25년조에 인용한 百濟記에 의하면 백제에 「들어와서 貴國에 往還한다. 制를 天朝에 承하여 우리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라고 한다. 貴國·天朝는 일본을 가리키고, 「來入」이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본래 任那에 있었던 듯하고 三國을 둘러싼 그의 행동은 복잡하다. 더구나 그 해 그는 일본에 「召」되고 있다.[147]

라고 하였다. 井上도 蘇我氏의 조상인 蘇我滿智로 추정되는 大倭木滿致를 僞倭의 예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蘇我氏는 일본계가 아닌 것이다. 中西 進은 백제계로 보았는데, 門協禎二도 5세기말에 백제에서 도래한 木 滿致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논증[148]하였다. 그리고 李進熙도 蘇我씨의 直系의 系譜를

蘇我石川宿禰-滿智-韓子-高麗-稻目-馬子-蝦夷-入鹿[149]

으로 보고 門協禎二의 설을 인용하여 백제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石川氏는 蘇我씨 후손인 셈인데, 蘇我의 조상은 백제로부터 일본에 건너간 蘇我滿智라고 한다면 石川氏는 백제계가 된다. '蘇我石川宿禰'의 石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石川大夫**(이시카와노마에츠키미), **石川女郎**(이시카와노이라츠메), **石川郎女**(이시카와노이라츠메:大伴安麻呂의 妻), **石川夫人**(이시카와노부닌), **石川少郎**(이시카와노오토이라츠코, 石川君子=石川朝臣吉美侯), **石川朝臣年足**(이시카와노아소미토시타리), **石川朝臣老夫**(이시카와노아소미오키나), **石川朝臣水通**(이시카와노아소미미미치), **石川朝臣足人**(이시카와노아소미타리히토), **石川賀係女郎**(이시카와노카케노이라츠메)은 모두 백제계가 될 것이다.

• **雪連宅麻呂**(유키노무라지야카마로)

雪連宅麻呂는 天平8년(736)의 遣新羅使人의 一人이었으나 往路 壹岐島에서 病死를 하였다. 古典大系『万葉集』에서는

147)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p.108-109.
148) 李進熙, 『日本文化と朝鮮』, NHK ブックス 359(日本放送出版協會, 1981), p.52.
149) 李進熙, 위의 책, p.52.

> 壹岐는 卜部를 내는 곳이므로, 宅麿도 占卜일에 종사하기 위해 일행에 참가한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렇다고도 생각되지만 의문이 있다. 壹岐島에 성행한, 卜占을 관장한 壹岐氏는 姓이 直이고, 貞觀六年에 宿禰를 받았으나 連姓은 아니다. 姓氏錄 右京神別에 「天兒屋命十一世孫雷大臣之家也」라고 하였다. 中臣氏와 遠祖가 같고 神事를 맡아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한편 連姓에는 伊吉連이 있고 左京諸蕃上·右京諸蕃上·河內國諸蕃의 注記에 보인다. 이것은 長安 사람 劉楊雍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므로 귀화인이다. 宅麿는 3688題詞에 있는 것처럼 連姓이므로 귀화인 계통으로 壹岐島의 卜部와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고, 일행에 참가한 것은 귀화인의 재능을 살린 書記라든가 통역 등의 일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150]

고 하였다. 長安 사람 劉楊雍에서 나왔다고 한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唐系로 본 것 같다. 高橋庄次도

> 雪宅麻呂는 壹岐嶋(由吉能之麻)의 挽歌의 題詞에는 「雪連宅滿」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姓氏錄』에 의하면 「壹伎直」(右京神別上)과 「伊吉連」(左京諸蕃上·右京諸蕃上)이 있고, 후자에는 「出自長安人劉家楊雍也」라고 하였으므로, 雪連氏는 唐系의 귀화인이다. 씨족의 祖인 이 楊雍은 長安 사람, 「續日本後紀」(承和二年 九月十三日)의 伊吉史豊宗의 條에도 「唐人楊雍」이라고 하였다. 伊吉連(壹岐連·雪連)은 壹岐島에 본거를 둔 唐系 氏族이라 보아 좋다. 이 雪連宅麻呂 挽歌(3694)에 龜卜이 노래불리어지고 있는데, 龜卜을 담당하는 卜部는 壹岐直氏로 壹岐連氏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다. 그러나 瀧川政次郎은, 神祇官에 龜卜을 맡은 卜部 20인이 설치되어 있은 것, 天平8년 遣新羅使의 卜部에 임명된 雪連宅麻呂는 이 神祇官卜部 20인 중의 한 사람이었음이 틀림 없다는 것, 雪(壹岐)連과 그 姓氏를 칭하는 以上은 壹岐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는 것 등, 『令義解』 등의 자료로부터 추정하였다.[151]

고 하여 역시 唐系로 보고 있으며 壹岐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외 澤瀉久孝와 稻岡耕二는 도래인계[152]로 보았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도 "雪은 壹岐氏로 壹岐國을 본거로 하여 占卜을 주로 하던 집안의 사람이라는 설과 또 連 姓이므로 귀화인 계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153]고 하였다.

雪連宅麻呂가 도래인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古典大系나 高橋庄次가

---

150) 大系, 『万葉集』 卷第四, p.483.
151) 高橋庄次, 앞의 논문, p.47.
152)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十五, p.76.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33.
153)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340.

말하는 것처럼 唐系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新撰姓氏錄』이 편찬된 시기에는 이미 백제 중심의 외교관계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출자를 중국으로 위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출자가 중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일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大 使 阿倍朝臣繼麻呂
副 使 大伴宿禰三中
大判官 壬生使主宇太麻呂
少判官 大藏忌寸麻呂 秦間滿(秦田麻呂) 大石養麻呂 田邊秋庭 羽栗雪連宅麻呂 大使의 第二男 師稻足 葛井連子老 六鯖(六人部連鮪麿?)[154]

그런데 雪連宅麻呂는 少判官으로 일행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少判官 10인 중 이름이 확실한 9인의 出自에 대해 高橋庄次는 秦間滿·大石養麻呂·田邊秋庭·土師稻足·秦田麻呂·葛井連子老·六鯖의 7인을 백제계로 보았다. 그리고 羽栗에 대해서는 唐女의 아들인가라고 하였고 雪宅麻呂는 唐系로 보았다.[155] 羽栗은 근거 없이 唐女의 소생인가라고 하였으며 雪連宅麻呂는 『新撰姓氏錄』에 근거하여 唐系로 본 것이다. 그런데 天平8년(736)의 遣新羅使人 중 少判官의 대부분이 백제계인데 구태여 唐系 도래인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壹岐는 한국의 渡倭人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雪連宅麻呂는 壹岐와 관계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雪連宅麻呂는 백제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消奈行文**(세나노키미교우몬)

大系 『懷風藻』에서는 "背奈王行文은 背奈公이라고도 하는데 귀화인 背奈福德의 아들이며 父 福德은 귀화하여 武藏國 高麗郡에 살았으며 行文은 官人이 되었다. 養老5년(721) 정월 明經 第二博士의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學業의 師範者로

154) 山本信三, 앞의 논문, pp.74-75.
155) 高橋庄次, 앞의 논문, p.49.

서 絁絲布鍬 등을 받았다."[156] 라고 하였다. 中西 進은 "高倉福信의 伯父(續紀)로 福信의 薨傳에 福信은 武藏國 高麗郡에서 行文을 따라 上京했다고 한다."[157]고 하였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도 "武藏國 高麗郡의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星野五彦은 고구려 귀화인[158]으로 보았다.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159]으로 보았다. 消奈行文이 武藏國 高麗郡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고구려계가 아닐까 한다.

• **小野朝臣國堅**(오노노아소미쿠니카타)

小野朝臣은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에 의하면 "小野朝臣 大春日朝臣同祖 彦姥津命五世孫米餅搗大使主命之後也 大德小野臣妹子 家于近江國滋賀郡小野村因以爲氏"[160]라 하였다. 稻岡耕二는 "山上氏는 「新撰姓氏錄」右京皇別에 의하면 粟田氏의 同族. 『姓氏家系大辭典』 소재系圖를 중시하여, 春日·柿本·小野·木樂井諸氏와 같이 舊添上郡을 本據로 하는 씨족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161]고 하였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柿本氏는 孝昭天皇의 황자로 天足彦國押人命을 조상으로 한다고 전해지며 원래 和珥씨를 本宗으로 하고 春日朝臣·粟田朝臣·小野朝臣 등과 조상을 같이 한다"[162]고 하였다. 山上氏·柿本·小野·木樂井諸氏가 모두 백제계로 同系이며 舊添上郡이 그들의 본거임을 생각하면 이 小野氏도 백제계라고 볼 수 있다. 小野氏國堅은 正倉院 문서에 그 이름이 보이며 『万葉集』 作者 중에서 자필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첫번째이다.

小野氏淡理(오노시노타모리:小野田守朝臣)는 天平二(730)一大宰帥旅人宅 梅花宴集客의 一人(5,815-846)으로 참여하여 작품을 짓고 있는데 이 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인계이며, 野氏淡理는 渤海大使를 지냈고 또 이름이 淡理

156) 『懷風藻』(岩波書店, 1982), p.509.
157) 中西 進, 『万葉集事典』, pp.242-243.
158)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59)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4.
160) 佐伯有清, 앞의 책, p.166.
161)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30에서 佐伯有清 「憶良は天智朝の渡來人か」, 『國文學』(昭55 11)을 인용하고 있다.
162)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117.

로 일본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을 澤瀉久孝는 "後年 渤海大使가 된 점을 생각하면 젊어서부터 異國 趣味가 있고 旅人을 모방하여 이 書名을 하였다고도 생각된다"[163]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小野氏淡理가 이국 취미가 있어가 아니라 백제계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小野朝臣老(오노노아소미오유:小野老朝臣)도 마찬가지로 天平二(730) 一 大宰帥旅人宅 梅花宴集客의 一人(5, 815~846)으로 참여하여 작품을 짓고 있으며 小野氏이므로 백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小鯛王**(오타히노오호키미)

小鯛王은『万葉集』卷第16의 3819와 3820番歌 의 左注에 '右歌二首小鯛王宴居之日取琴登時必先吟詠此歌也 其小鯛者更名置始多久美斯人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置始 부분을 보면 置始連이라 하였으므로 渡倭系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 **粟田女娘子**(아하타메노오토메)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粟田氏는 和珥씨와 동족. 攷証에는 續紀에 보이는 粟田朝臣諸妹, 廣刀自 등의 여인이 이에 해당하는가"[164]라고 하였다. 粟田氏는 和珥씨와 동족이고 柿本씨도 和珥씨와 동족이며 山上씨는 粟田氏의 分脈인 것이다. 이런 관계로 보면 粟田氏는 귀화족의 종족에 의해 형성된[165] 것인데, 그렇다면 粟田氏는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粟田大夫(아와타노다이부)를 澤瀉久孝는 栗田朝臣人上[166]이라 보았는데 粟田朝臣人上이라는 설과 粟田朝臣人(心登)이라는 설이 있다.[167]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로 粟田氏이므로 백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粟田女王**(아하타베노오호키미)은 백제계 粟田氏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

163) 澤瀉久孝,『万葉集注釋』卷第五, p.146.
164)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万葉集歌人事典』, p.22.
165)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万葉集歌人事典』, p.323
166) 澤瀉久孝,『万葉集注釋』卷第五, p.113.
167)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万葉集歌人事典』, p.22.

• **柿本朝臣人麿**(카키노모토노아소미히토마로)

佐伯有清은 "山上氏는『新撰姓氏錄』右京皇別에 의하면 粟田氏의 동족.「姓氏家系大辭典」소재 系圖를 중시하여, 春日·柿本·小野·木樂井諸氏와 같이 舊添上郡을 本據로 하는 씨족"[168]이라고 하였고 稻岡耕二는 柿本氏는 和珥씨의 支流[169]라고 하였다.「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柿本氏는 孝昭天皇의 황자로 天足彦國押人命을 조상으로 한다고 전해지며 원래 和珥씨를 本宗으로 하고 春日朝臣·粟田朝臣·小野朝臣등과 조상을 같이 한다"[170]고 하였다. 이로 보면 柿本朝臣人麻呂는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 **矢作部眞長**(야하기베노마나가)

『新撰姓氏錄』未定雜姓 河內國에 矢作連이 있다. 連 姓이다. 星野五彦은 귀화인[171]이라고 보았다. 渡倭系이다.

• **神社忌寸老麿** (카미코소노이미키오유마로)

星野五彦은 귀화인[172]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173]이라고 하였다.

한인계라고 보고자 한다.

• **阿倍朝臣繼麿**(아베노아소미츠기마로)

阿倍朝臣繼麻呂는 天平八年 二月에 遣新羅大使가 되었으며, 高橋朝臣에서 이미 논하였듯이『新撰姓氏錄』左京皇別上에서 高橋朝臣은 阿倍朝臣同祖이며 天武十二年에 膳臣을 고쳐서 高橋朝臣을 내렸다고 하였다. 高橋蟲麻呂가 連이어 渡倭人이라면 高橋朝臣도 같은 姓이므로 渡倭人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天平八年丙子夏六月遣使新羅國之時使人으로 참여한 **阿倍朝臣繼麻呂**

---

168) 佐伯有清「憶良は天智朝の渡來人か」『國文學』(1980. 11). 稻岡耕二,『万葉集事典』, p.230에서 재인용.
169) 稻岡耕二,『万葉集事典』, p.181.
170)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117.
171)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72)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173)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의 第二男, 阿倍朝臣老人(아베노아소미오키나), **阿倍大夫**(古義에 廣庭卿이라고 하였음), **阿倍女郎**(아베노이라츠메), **安倍朝臣廣庭**(아베노아소미히로니와), **安倍朝臣沙弥麿**(아베노아소미사미마로), **安倍朝臣奥道**(아베노아소미오키미치), **安倍朝臣子祖父**(아베노아소미코오지), **安倍朝臣蟲麿**(아베노아소미무시마로), **安倍朝臣豊繼**(아베노아소미토요츠구)도 모두 渡倭人으로 볼 수 있을 것같다.

• **阿氏奥嶋**(아시노오키시마)

澤瀉久孝는 "「阿氏」는 阿倍氏의 略이라고 생각되지만 확실하지 않다."[174]고 하였고, 土屋文明은 "阿氏는 阿部氏라고도 하는 것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나 奥島는 알 수 없다."[175]고 하였다. 阿氏가 阿倍氏라면 역시 渡倭人일 것이다.

• **安都宿禰年足**(아토노스쿠비토시타리)

安都宿禰年足은 『續日本紀』 養老三年五月癸卯(十五日)에 "正八位下阿刀連人足等三人並 賜宿禰姓"[176]이라고 하였다. 또 『新撰姓氏錄』 左京神別上에 "阿刀宿禰 石上同祖"[177]라고 하였다. 阿刀連人足이라고 하여 連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渡倭人임을 알 수 있는데 石上과 同祖라고 본다면 백제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安都扉娘子**(아토노토비라노오토메)도 같은 백제계가 아닐까 싶다.

• **安宿奈登麿**(아스카베노키미나도마로)

稻岡耕二는 『續日本紀』에 百濟安宿公奈登麻呂라고도 보이므로 백제로부터의 도래인의 자손[178]이라고 하였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도 마찬가지로 "河內國安宿郡 출신의 사람으로 백제 도래계의 사람일 것이다. 一門에는 經師가 많다"[179]고 하였다.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180]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도 "神

174)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五, p.123.
175) 土屋文明, 『万葉集私注』 卷第三, p.75.
176) 續日本紀 前篇, p.76.
177) 佐伯有清, 앞의 책, p.213.
178)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153.
179)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9.
18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護 元年 百濟 安宿公奈登麿에 外從五位下를 주었는데 出雲의 椽이며 安宿은 飛鳥部"[181]라고 하였다. 安宿奈登麿는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 **桉作村主益人**(쿠라즈쿠리노스쿠리마스히토)

桉作村主益人에 대하여 澤瀉久孝는 "河內志澁川郡鞍作故居에 注하여 「鞍作村百濟工人多須那歸化賜姓鞍作其子都理善造佛像世稱禽佛師云云」이라고 하였다. 귀화인의 자손이나 益人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182]고 하였다. 中西 進은 "村主는 渡來系氏의 姓"[183]이라고 하였고,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桉作씨는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仁德朝에 귀화하고 있다. 또 村主는 귀화계의 사람들에게 내린 姓이므로 귀화인의 자손일 것"[184]이라고 하였다.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185]으로 보았다.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 **鴨君足人**(카모노키미노타리히토)

鴨君은 『新撰姓氏錄』 攝津國皇別에 鴨君은 그 앞의 依羅宿禰와 같다고 하였는데 依羅宿禰를 보면 "日下部宿禰同祖 彦坐命之後也 續日本紀合"[186]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日下部使主三中을 "上總國의 國造의 丁으로 성이 使主. 귀화인의 후예인가?"[187]라고 하였다. 鴨君이 日下部와 同祖인데 日下部가 백제와 관련이 있다면 鴨君도 백제계가 될 것이다.

• **野氏宿奈麿**(야시노스쿠나마로)

澤瀉久孝는 "野氏는 大野, 小野, 三野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다."[188]고 하였다. 小野가 백제계였으므로 백제계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181)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182)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三, p.216.
183) 中西 進, 『万葉集事典』, p.229.
184)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150.
18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186) 佐伯有淸, 앞의 책, p.196.
187)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147.

• **若櫻部朝臣君足**(와카사쿠라베노아소미키미타리)

若櫻部朝臣君足은 『日本書記』 卷第 十二 履中天皇 三年 十一月 丙寅朔辛未條에 "是日改長眞膽連之本姓曰稚櫻部造 又號膳臣余磯 曰稚櫻部臣"[189]이라 하였다. 長眞膽連이라 하여 連 姓을 사용하였고 櫻部造라 하여 渡倭人에게 부여된 造를 사용하였으므로 渡倭人이라고 할 수 있다.

• **椋椅部刀自賣**(쿠라하시베노토지메), **椋椅部弟女**(쿠라하시베노오토메), **椋椅部荒虫**(쿠라하시베노무시마로)

星野五彦은 이들을 모두 귀화인[190]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 未定雜姓 攝津國에 椋椅部連이 보이는데 連 姓이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 **額田王**(누카타노오호키미)

土橋 寬은

> 다음에 額田王의 父 鏡王은 어떤 인물일까 하는 문제. 「王」, 「姬王」이라고 하는 것은 2세(天皇의 孫)에서 5세까지의 王族에 사용하는 말이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앞에 인용한 天武紀 2년의 기사이다. 그 天武天皇后妃를 記述한 순서를 보면 皇后, 妃, 夫人의 順으로, 皇后는 皇族(天智天皇의 皇女), 妃 3인도 皇族, 夫人은 두 사람이 藤原鎌足의 딸, 한 사람이 蘇我赤兄의 딸로, 그 다음이 額田王, 그 다음이 지방호족 胸形君, 人臣出身의 妾이 기록되어 있다. 額田姬王이 王族이라면 妃와 夫人의 사이에 서열되어야 할 것인데 중앙씨족과 지방호족 사이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鏡王」에 대해서는 「丹波道主王」과 마찬가지로, 왕족으로서 지방호족이 된 자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설명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額田王의 서열이 설명이 되지 않으며,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鏡王을 백제로부터 도래한 왕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191]

라고 하였다. 中西 進은 額田王은 鏡王의 딸이라고 한 『日本書紀』의 기록에 근거하여, 近江의 鏡山이 거울을 만드는 신라계의 기술자들이 거주하였다고 하고 額田王은 바로 이 신라계의 후손[192]이라고 하였다.

---

188)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五, p.131.
189) 大系 「日本書紀」 上 , 427.
19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91) 土橋 寬, 『萬葉開眼』 上. NHK ブックス 313(日本放送出版協會, 1981), p.81.

土橋 寬은 百濟系로 보았고, 中西 進은 신라계로 보았다. 신라 삼국통일 전까지는 일본은 백제와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졌고, 신라와의 우호 관계는 백제 멸망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임을 생각하면 萬葉초기의 작자인 額田王은 신라계라고 하기 보다는 백제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 **奄君諸立**(아무노키미모로타치)

奄君諸立은 『新撰姓氏錄』 左京神別 下에 '奄智造', 大和神別에 '奄知造'가 있는데 모두 渡倭人에게 부여되었던 造 姓이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 **余明軍**(요노묘오군)

澤瀉久孝는 余氏가 『日本書記』 持統天皇 五年正月朝에 正廣肆百濟王余禪廣의 이름이 보이며 『續日本紀』 天平寶字二年六月條에 "大宰陰陽師從六位下余益人 造法華寺判官從六位下余東人等四人賜百濟朝臣姓"이라 하였고 天平寶字五年三月에 "百濟人余民善女等四人賜姓百濟公"이라 한 기록으로 미루어 백제 王族의 氏이며, 金氏는 續紀 天平五年六月에 "武藏國埼玉郡新羅人德師等 男女五十三人 依請爲金姓"이라 하여 신라 왕족의 氏이다. 和銅二年十一月에 伯耆守가 된 金上元의 이름이 보인다. 養老七年正月에 正六位上에서 從五位下가 된 余仁軍은 지금의 작자와 혈족 관계가 있는 듯[193]하다고 하여 백제 왕족으로 보았다. 稻岡耕二는 "流布本에서는 金明軍이라 되어 있다. 余氏라면 백제왕계, 金氏라면 신라왕계이다. 古寫本系가 余氏이고 續日本紀에는 余仁軍(養老七年正月)이라고 보이나 이름과 시대가 가까운 것으로 보아 대부분 余쪽을 취하고 있다."[194]고 하였다. 『万葉集歌人事典』, 中西 進, 上田正昭[195]는 백제계라고 하였으나 山本信三은 金明軍은 新羅에 김씨가 많으므로 그 나라 사람일 것이라고 한 本居氏의 설을 그대로 소개[196]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계로 본 듯하다. 金明軍으로 보다

192) 中西 進, 『万葉の時代と風土』, pp. 110-111.
193)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三, p.445.
194)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34..
195)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345. 中西 進, 『万葉の時代と風土』, p. 09.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0.
196)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4.

는 余明軍이 더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緣達師**(엔다치호우시)

上田正昭는 渡來系의 歌人[197]이라 하였는데, 土屋文明은 "作者 緣達師의 師는 法師라는 뜻으로, 緣達이라고 하는 이름의 僧일 것이라고 말해지지만, 大化元年紀에 緣福이라는 百濟의 大使가 보인다.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緣은 백제의 姓이고, 達師가 이름, 백제로부터의 歸化族의 한사람일 것이다."[198]라고 하였다. 澤瀉久孝와 中西 進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백제계라고 보는 설을 따르고자 한다.

• **宇努首男人**(우노노오비토오히토)

『新撰姓氏錄』 大和國諸蕃에 "宇奴首 百濟國君男彌奈曾富意彌也"[199] 라 하였고 河內國諸蕃에는 "宇努造 宇努首同祖 百濟國人彌那子富意彌之後也"[200]라고 하였다.

따라서 『万葉集歌人事典』, 星野五彦[201]모두 백제계로 보았다. 백제계이다.

• **羽栗**(하쿠리)

天平八年丙子夏六月 遣使新羅國之時使人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다. 高橋庄次는 唐女의 子인가[202]라고 하였으나, 中西 進은 "그리고 이들은 上揭 村山氏의 논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도 일부 공통되지만 그 외에 氏는 笠臣, 坂本臣, 羽栗臣들을 들고 있고, 시대를 널리 보면, 渡來者에 臣姓이 부여된 경우는 적지 않다."[203]고 하였는데 백제계로 본 듯하다. 이 사람도 백제계라 보아진다.

---

197)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198) 土屋文明, 『万葉集私注』 卷第四, p.317.
199) 佐伯有淸, 앞의 책, p.313.
200) 佐伯有淸, 위의 책, p.327.
201)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43.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02) 高橋庄次, 앞의 논문, p.49.
203)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p.111.

• **元仁**(관닌)

土屋文明, 稻岡耕二, 上田正昭[204] 모두 도래계라 하였다.

渡倭人이겠으나 출자를 분명히 알 수 없다.

• **六鯖麻呂**(무사바마로)

天平八年丙子夏六月 遣使新羅國之時使人의 한 사람이다.

『新撰姓氏錄』 和泉國諸蕃에 "六人部連 百濟公同祖 酒王之後也"라고 하였고, 또 그 百濟公에 대해서는 "百濟公 出自百濟國酒王也"[205]라고 하였다.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206]으로 보았고, 高橋庄次는

> 이 사람도 백제계 씨족이다. 이 六鯖의 異例의 略稱은 羽栗의 略稱과 함께, 그것이 재액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한 주술이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졸저에서 지적하였다. 羽栗 쪽은 羽栗氏라고 생각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羽栗吉麻呂가 唐女에게 낳은 자식 翼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207]

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 **依羅娘子**(요사미노오토메)

柿本朝臣人麻呂의 妻인데 星野五彦은 귀화인[208]이라고 하였다.

한인계일 것이다.

• **忍坂部乙麿**(오사카베노오토마로)

『新撰姓氏錄』 未定雜姓에 忍坂連이 보인다. 連 姓이다.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209]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阿知使主의 族姓. 刑部라고도 한다. 集에 이 사람 외에 刑部垂麿, 刑部三野, 刑部千國 등이 있다"[210]고 하여 백제계로

---

204) 土屋文明, 『万葉集私注』 卷第五, p.50.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187. 上田正昭, 앞의 문, p.32.
205) 佐伯有淸, 앞의 책, p.331.
206)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07) 高橋庄次, 앞의 논문, p.47.
208)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09) 星野五彦, 위의 논문, p.29.
210)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보았다.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 **忍海部五百麻**(오시누미베노이호마로)

『新撰姓氏錄』 逸文을 보면 忍海村主[211]가 있다.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12]으로 보았는데 忍坂部와 관련된 것으로 백제계가 아닐까 싶다.

• **日下部使主三中**(쿠사카베노오미미나카)

『新撰姓氏錄』을 보면 日下部, 日下部連, 日下部首, 日下部宿禰, 川俣公, 依羅宿禰, 酒人造는 모두 同祖로 되어 있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上總國의 國造의 丁으로 성이 使主, 귀화인의 후예인가?"[213]라고 하였다. 連 姓이어 渡倭系이라면 혹 백제 酒公과 관련된 姓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그렇다면 **日下部使主三中之父** 역시 백제계가 될 것이다.

• **任生使主宇太麻呂**(미부노오미우다마로)

天平八年丙子夏六月遣使新羅國之時使人의 大判官으로 참가하였다. 성이 使主이다. 그런데 井上秀雄은

> 延曆10년(791) 4월조에서는 文忌寸의 조상을 漢의 高帝의 後裔 鷺의 자손인 王豹가 백제에 이주하여, 그 孫인 王仁이 日本에 도래했다고 한다. 이같은 생각은 그대로 「新撰姓氏錄」에 이어지고 있다. 「新撰姓氏錄」의 것을 系圖化하면 다음과 같다. 文宿禰와 坂上大宿禰의 경우는 중앙귀족답게 중국의 왕실과 관련지어진 系圖가 조작되고 그 권위 부여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桑原村主·豊岡連·尾津直 등 지방호족의 계보는, 萬德使主·伊須久牟治使主·大水命 등 使主와 命의 姓이랑 존칭을 지니는 일본에서의 계보밖에 가지지 않았다. 그것이 文宿禰 등과의 從屬 관계가 생겨난 것일까, 7세기의 孫, 5세기의 孫내지는 後裔라고 칭하는 것처럼 계보상 아무런 媒介도 두지 않고, 돌연 漢의 高祖와 관련지어지고 있다. 아마 漢 高祖와의 연결은 「新撰姓氏錄」편찬 과정에서 桑原村主 등이 文宿禰 등과의 관계를 계보화한 것은 아닐까고 생각된다."[214]

---

211) 佐伯有清, 앞의 책, p.358.
21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13)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147.
214) 井上秀雄, 앞의 논문, 『渡來人の系譜』, pp.74-75.

고 하였다.

使主가 불은 것은 그리 세력이 크지 않은 지방의 渡倭人인 것 같다. 新羅使大判官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茨田連沙彌麿**(마무타노무라지사미마로)

茨田連沙弥麻呂는 連 姓이므로 渡倭人이라고 볼 수 있다.

• **長忌寸意吉麿**(나가노이미키오키마로)

忌寸은 天武13년에 정해진 八姓의 하나이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伊藤 博은 長忌寸意吉麿를 논하면서

> 長忌寸氏는 紀伊國那賀郡을 本貫으로 하고, 漢의 高祖를 조상으로 하는 東漢氏의 일족이었던 듯하다. 意吉麻呂 人麻呂와 거의 같은 시대인 持統·文武朝의 歌人 高市連黑人과 거의 동년배이고 人麻呂보다는 약간 후배로 하급관인이었던 것같다."[215]

고 하였다. 稻岡耕二는

> 이름을 奥麻呂라고도 한다. 紀伊國那賀郡을 本據로 하는 長氏의 출신. 東漢의 계통에 속하는 도래계 씨족으로 보인다. 성은 처음에 直, 天平11년(682) 連으로 되고 同14년 6월 忌寸을 받았다[216]

고 하여 역시 漢系로 보았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도 "意吉麿, 奥麻呂, 奥麿, 興麿 등으로도 표기되며 興은 奥의 오자로 보는 것이 좋음. 성은 忌寸. 日本書紀에 보이는 長直 (倭漢系 귀화족)이 그 조상인가?"[217]라고 하였으며 星野五彦도 漢의 귀화인[218]으로 보았다. 그런데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219]으로 보았다. 紀伊國을 본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紀伊國은 紀氏의 본거지이고 이 紀氏는 백제계임을 생각하면 長忌寸奥麻呂는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215) 伊藤 博, 『萬葉集全注』 巻第一, p.233.
216)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p.213-214.
217)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256.
218)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19)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長忌寸娘(나가노이미키노오토메)을 稻岡耕二는 長忌寸意吉麻呂의 딸[220]이라고 보았는데 星野五彦은 "漢? 귀화인"[221]이라 하였고,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222]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백제계일 것이다.

- **丈部稻麿**(핫세츠가베노이나마로), **丈部山代**(핫세츠가베노야마시로), **丈部与呂麿**(핫세츠가베노요로마로), **丈部龍麿**(핫세츠가베노타츠마로), **丈部鳥**(핫세츠가베노토리), **丈部造人麿**(핫세츠가베노미야츠코히토마로), **丈部足麿**(핫세츠가베노타리마로), **丈部足人**(핫세츠가베노타리히토), **丈部直大麿**(핫세츠가베노아타히오호마로), **丈部眞麿**(핫세츠가베노마마로), **丈部川相**(핫세츠가베노카와이), **丈部黑當**(핫세츠가베노쿠로마사)

星野五彦은 이들을 모두 귀화인[223]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에 丈部造가 있으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으나 그 출자를 확실히 알 수 없다.

- **張氏福子**(초우시노후쿠시)

澤瀉久孝는 藥師張氏福子를 攷證을 인용하면서 "귀화인에 醫術에 능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도 대륙계의 사람으로 福子도 字音으로 읽어야 한다."[224]고 하였다.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張氏는 尾張氏라고도 말하지만 續紀天平寶字 八年 十月조에 '張祿滿'이라고 보이는 一字姓을 가진 귀화계 씨족으로 생각되며 '福子'는 家傳下(武智麻呂傳)에 '方士(中略)張福子'라고 보이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225]하였다. 星野五彦[226]과 上田正昭[227]는 도래인이라고 하였으며,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228]이라고 보았다. 山本信三의 설을 따라 한인계로 보고자 한다.

---

220)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14.
221)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22)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7.
223)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24)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五, p.128.
225)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234.
226)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27)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228)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7.

• **田口朝臣益人**(타구치노아소미마스히토)

田口益人은『新撰姓氏錄』左京皇別上에 "田口朝臣 石川朝臣同祖 武內宿禰大臣之後也 蝙蝠臣 豐御食炊屋姬天皇(諡推古)御世 家於大和國高市郡田口村 仍號田口臣 日本紀漏"[229]라고 하였다.

그런데 앞의 石川氏 부분에서 보았듯이 石川씨는 蘇我씨 후손인 셈인데 蘇我의 조상은 백제로부터 일본에 건너간 蘇我滿智라고 한다면 石川氏는 백제계가 된다. 그런데 田口가 石川과 同祖라고 한다면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田口朝臣馬長(타구치노아소미우마오사)도 田口益人과 마찬가지로 백제계일 것이다.

• **田邊秋庭**(타나베노아끼니와)

天平八年丙子夏六月 遣使新羅國之時使人으로 참가하고 있다. 星野五彦은 漢귀화인[230]으로 보고 있고, 高橋庄次는

> 田邊秋庭의 "田邊氏"는 「姓氏錄」의 左京皇別下와 右京皇別下에 「田邊史」의 氏姓으로 보이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또 하나 右京諸蕃上에도 「田邊史出自漢王之後知惣也」라고 하였으며 佐伯有淸은 이 조에 田邊秋庭을 例示하고 있다. 佐伯은 同條의 漢王에 대하여 「韓王의 뜻으로 百濟王의 뜻인가」라고 한다. 또 知惣에 대해서는 「續紀」 延曆9년 7월 17일조에 「百濟國貴須王(中略) 其孫辰孫王 一名智宗王」이라고 하였고 『姓氏錄』(河內國諸蕃)의 「岡原連」의 條에는 「出自百濟國辰斯王子知宗也」라고 한 것을 들어 백제의 貴須王의 孫인 智宗王과 백제의 辰斯王의 子인 知宗 및 漢王(韓王)의 후예인 知惣은 모두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田邊秋庭은 백제계의 氏族이었던 것이 된다.[231]

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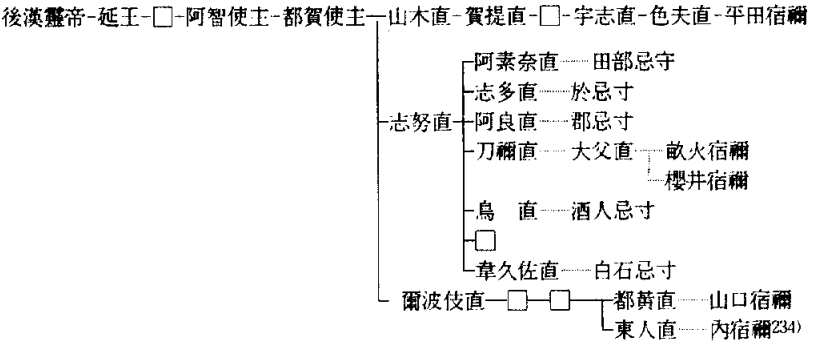
田邊史福麻呂(타나베노사키마로)를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32]이라고 하였고, 上田正昭는 백제계의 도래씨족[233]이라고 하였으나 田邊秋庭과 마찬가지로 백

229) 佐伯有淸, 앞의 책, p.161.
23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31) 高橋庄次, 앞의 논문, pp.46-47.
23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33)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1.

제계로 보고자 한다.

• **田部忌寸櫟子**(타베노이미키이치히코)

田部忌寸櫟子는 傳未詳이나 井上秀雄가 『新撰姓氏錄』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한 坂上大宿禰들의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田部忌寸은 坂上系圖에 의하면 阿智王의 후예가 된다. 田部氏이고 姓은 忌寸이므로 渡倭人인데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235]이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을 따르면 漢系이나 『新撰姓氏錄』이 백제계 秦氏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漢系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계일 것이다.

• **田氏肥人**(덴시노우마히토)

星野五彦은 귀화인[236]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237]이라고 하였고, 澤瀉久孝는 "田氏는 田口, 田邊, 太田, 野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것이라고도 정하기 어렵다"[238]고 하였다. 그런데 田口, 田邊이 백제계라면 田氏肥人도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234) 井上秀雄, 앞의 논문, p.75.
235)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236)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37)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238)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五, p.132.

田氏眞上(덴시노마카미)도 星野五彦과 上田正昭는 귀화인[239]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240]이라고 보았다. 田氏肥人과 마찬가지로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調使首**(츠키노오미노오비토)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下 調連에 "水海連同祖 百濟國努理使主之後也 譽田天皇(諡應神)御世 歸化 (中略) 弘計天皇(諡顯宗) 御世 蠶織獻絁絹之樣 仍賜調首姓"[241]이라 하였다.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242]으로 보았고, 上田正昭는 渡來系의 歌人[243]으로 보았다. 백제계이다.

調首淡海(츠키노오비토아후미)도 『万葉集歌人事典』, 星野五彦, 上田正昭[244] 모두 백제로부터의 도래인으로 보았다. 백제계이다.

• **舟氏麻呂**(후나시마로)

星野五彦은 귀화인[245]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舟는 船이며 百濟 仇首王에서 나왔다. 高麗烏羽의 表文을 판독한 것으로 유명한 王辰爾의 系이며, 欽明天皇 때 辰爾船賦를 檢한 것으로 인해 船氏를 받았다."[246]고 하였다. 그리고 中西 進은 "津臣과 津連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지만 津宿禰는 백제 都慕王의 후예(右京諸蕃下), 津史는 船史牛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紀), 船·葛井 등과 一祖라 생각되는 것이 津連이다(續紀寶字二年 八月). 津連의 일부는 이미 朝臣을 받은 것 같지만, 葛井連·船連은 延曆 10년 정월에 宿禰를, 津·宮原·中科 등으로 나누어 받고 있다."[247]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

239)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40)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241) 佐伯有清, 앞의 책, p.286.
24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43)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3.
244)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23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上田正昭 위의 논문, p.28.
24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46)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247)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p.110.

• **中臣部足國**(나카토미베노타리쿠니)

이들 中臣氏에 대하여 中西 進은 "境部臣, 林臣을 포함한 蘇我一族이 渡來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昨今이다. 심지어는 中臣조차 도래계가 아닐까고도 한다."[248]고 하였다. 또 大系『万葉集』補注에서는 "壹岐는 卜部를 내는 곳이므로, 宅麿도 占卜일에 종사하기 위해 일행에 참가한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렇다고도 생각되지만 의문이 있다. 壹岐島에 성행한, 卜占을 관장한 壹岐氏는 姓이 直이고, 貞觀六年에 宿禰를 받았으나 連姓은 아니다. 姓氏錄右京神別에「天兒屋命十一世孫雷大臣之家也」라고 하였다. 中臣氏와 遠祖가 같고 神事를 맡아도 부자연스럽지 않다."[249]고 하였다.

壹岐氏 즉 雪氏는 中臣氏와 遠祖가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폈듯이 雪連宅麻呂가 백제계라면 이 中臣氏도 백제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中臣女郎**(나카토미노이라츠메), **中臣朝臣東人**(나카토미노아즈마히토), **中臣朝臣武良自**(나카토미노무라지), **中臣朝臣宅守**(나카토미노야카모리), **中臣清麿**(나카토미노키요마로)도 백제계가 될 것이다.

• **志婁連**(시히노오미나)

『新撰姓氏錄』左京神別上에 重臣志婁連이 보인다.

連 姓이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 **志氏大道**(시시노오호미치)

澤瀉久孝는 "志氏는 志紀氏. 私注에 武智麻呂傳, 曆 의 조에 실린 志紀連大道인 것이 주의된다."[250]고 하였고, 土屋文明은 "志氏는 志紀氏. 志紀連大道는 武智麻呂傳에 이름이 보이는 당시의 曆算의 大家이다."[251]고 하였다.역시 連 姓이므로 渡倭人이라고 할 수 있다.

---

248) 中西 進은「憶良 渡來人論 補遺」, p.112에서 杉山二郎·梅原猛·田邊昭三諸氏의「藤原鎌足」을 인용하고 있음.
249) 大系『萬葉集』四, p.483.
250) 澤瀉久孝,『万葉集注釋』卷第五, p.135.
251) 土屋文明,『万葉集私注』卷第三, p.82.

• **秦間滿**(하다노마마로)

天平八年丙子夏六月 遣使新羅國之時使人으로 참가하고 있다.

稻岡耕二는 "도래인 秦氏의 一族인가? 秦田麻呂와 동일인이라고도 한다."[252] 고 하였고, 上田正昭도 渡來系의 歌人[253]이라고 하였으며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54]으로 보았다. 高橋庄次는

> 秦部는 秦氏의 部民이며, 勝氏에 대해서도 「秦氏의 配下에 속하는 部民이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異論은 없는 것같다」고 한다. (中略) 『姓氏錄』(山城國諸蕃)에 「勝 上勝同祖 百濟國人 多利須須之後也」라고 한 것처럼 勝氏도 百濟系이었다. 豊前國은 百濟系의 秦氏族集團의 本據이었다고 말해도 좋다. (中略) 豊前國은 佛敎의 公傳 以前에 가장 일찍 불교가 들어간 지역으로 諸家에게 注目되고 있고 秦氏 등 귀화계 집단과의 관계가 지적되고 있다.[255]

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그리고 井上秀雄은

> 秦氏의 出自를 百濟라고 하지 않고 신라라고 하는 설이 많다. 그러나 秦氏의 出自를 신라로 하는 설은 주로 考古學的 硏究의 결과, 畿內의 5세기 후반의 新文物이 신라 계통의 문화라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의 고고학적 연구는 크게 진보하여 일찍이 신라계 문화라고 말해지고 있던 것도 가야문화로서 분리할 필요가 생겨 났다. 秦氏의 출자를 신라라고 하는 설은 그 근거로 되어 있는 고고학적 성과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도 또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秦(ハタ)氏는 그 訓이 조선어의 海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秦氏를 해외로부터 渡來한 씨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할 것이다. 다시 한정해서 말하면, 漢(アヤ)氏의 出自를 安羅國·阿羅伽耶(慶尙南道咸安郡)이라고 하는 데 대해, 秦氏의 出自를 바다에 접한 金官伽耶國(慶尙南道 金海郡)으로 보는 것을 提唱하고 싶다.(中略)
>
> 秦氏의 出自가 신라인가 금관가야국인가, 그 어느쪽을 취한다고 해도 『日本書記』의 百濟出自說을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연구 수준으로 말하면 『日本書記』에 보이는 秦氏의 출자를 백제라고 하는 설은, 편찬 과정에서 그 출자를 변경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경우 적극적으로 그 출자를 변경한 것인가, 단순하게 책상 위에서의 付加인가는 不明이지만, 『日本書記』 편

252)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17.
253)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3.
254)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55) 高橋庄次, 앞의 논문, p.56.

> 찬의 시기에는, 백제문화를 신라와 加耶 제국의 문화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 秦氏를 백제 문화의 전파자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아진다.[256]

라고 하였다. 이처럼 秦씨는 漢系, 백제계, 신라계, 금관가야계로 설이 분분하다. 그런데 秦氏를 『新撰姓氏錄』에서 漢系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井上秀雄이

> 秦氏의 계보가 9세기에 들어오면 크게 변질한다. 그 하나는 秦氏의 출신지가 조선으로부터 중국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 하나는 일본에 도래하고 나서의 계보만이 아니라, 中國 在住의 시기의 계보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계보가 9세기 초두에 급히 만들어진 것 같은 것은, 그 用字法이 혼란하고 있는 것과 계보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부터도 추측할 수 있다. 또 前者처럼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두에 걸쳐서 記紀編纂에 臨하여 秦氏의 出自를 加羅 내지는 신라에서 백제로 옮기고, 9세기 초의 『新撰姓氏錄』 編纂에 있어서 秦氏의 출신지가 백제에서 中國 秦王朝에로 다시 바뀌고 있다.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의 변화는 다음의 漢氏의 계보의 異動으로도 추측할 수 있지만 조선을 통해서의 신문물의 도입에 서서히 관심을 잃고, 唐文化를 직접 수입하는 것에 관심이 옮겨간 것을 나타내고 있다.[257]

라고 논하였다. 따라서 漢系는 될 수가 없을 것이다. 秦氏에 대하여는 필자도 논한 바[258]가 있다. 秦氏는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秦伊美吉石竹(하다노이미키이와타케)을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59]으로 보았으나 秦間滿에서 보았듯이 한인계이며 그 중에서도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秦忌寸朝元(하다노이미키쵸우관)을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60]으로 보았다. 上田正昭는

> 秦忌寸朝元은 弁正의 子로, 弁正은 大寶 年度의 遣唐 留學僧으로 당에 건너가, 조원의 兄 朝慶과 함께 在唐하던 중에 사망하였으나, 朝元은 귀국하여 의술 등에 뛰어난 까닭에 養老5년 정월에는 絁·糸·布·鍬를 받고 있다. 天平2년 (730) 3월에는 通譯 養成을 위하여 粟田馬養 등과 함께 제자를 취

256) 井上秀雄, 앞의 논문, pp.70-71.
257) 井上秀雄, 위의 논문, p.72.
258) 李妍淑, 「万葉集歌에 나타난 韓衣·高麗錦(1)」, 『東義論集』 21호, 동의대학교, 1994.
259)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60)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하여 漢語를 가르치고, 天平 年度의 遣唐使에는 入唐 判官으로서 참가하였다. 天平 9년 12월에는 圖書頭가 되고 同18년 3월에는 主計頭가 된 인물이다. 秦忌寸朝元이 應詔歌를 짓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을, 渡來人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 후술하는 것처럼 渡來人이 作歌·作詩에 뛰어난 예는 많으며, 作歌의 길에 있어서의 역할도 輕視할 수 없다. 더구나 2세, 3세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다. 오히려 秦朝元은 漢語에 뛰어난 인물이기는 했지만 作歌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개인의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應詔歌의 代償으로 麝香을 가지고 하라고 橘諸兄이 농담삼아 말한 것은, 이 新羅系 渡來氏族의 집에 麝香이 保有되고 있은 것을 부러워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261]

고 하여 新羅系 渡來氏族으로 보았다. 秦 姓이므로 역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秦忌寸八千嶋(하다노이미키야치시마), **秦田麿**(하다노타마로), **秦許遍麿**(하다노코헤마로)를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62]으로 보았다. 『万葉集歌人事典』과 上田正昭는 도래계[263]로 보았는데, 秦忌寸朝元이 신라계 渡倭氏族이므로 秦忌寸八千嶋도 신라계 渡倭氏族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椎野連長年**(시히노노무라지나가토시)

椎野連長年을 澤瀉久孝는 "「續日本紀」 神龜元年五月條에 '辛未(十三日)正七位上四比忠勇賜椎野連'이라고 있으므로 그 일족이라 생각된다"[264]고 하였다. 中西 進은 天智朝渡倭人인 四比忠勇(紀)의 後孫으로 의사인 것 같다[265]고 하였다. 上田正昭는 "椎野連長年도 百濟系의 渡來氏族이었다. 近江朝의 官人에 백제의 達率 四比福夫가 있고, 四比忠勇은 神龜元年(724) 5월 椎野連을 칭하고, 四比河守도 天平神護2년(766) 3월에 椎野連을 칭하고 있다."[266]고 하였다. 四比

261) 上田正昭, 앞의 논문, p.29.
26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63)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276.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1.
264)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十六, p.116.
265) 中西 進, 『万葉の時代と風土』, p.107.

忠勇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므로 모두 백제계로 본 것이다.

• **春日部麿**(카수가베노마로)

佐伯有清은 "山上氏는 『新撰姓氏錄』 右京皇別에 의하면 粟田氏의 동족. 『姓氏家系大辭典』 소재 系圖를 중시하여, 春日·柿本·小野·木樂井諸氏와 같이 舊添上郡을 本據로 하는 씨족"[267]이라고 하였고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柿本氏는 孝昭天皇의 황자로 天足彦國押人命을 조상으로 한다고 전해지며 원래 和珥씨를 本宗으로 하고 春日朝臣·粟田朝臣·小野朝臣 등과 조상을 같이 한다"[268]고 하였다. 이로 보면 春日은 柿本·粟田·山上 등과 같은 本宗이므로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春日王(카수가베노오호키미)은 春日長首老로 원래 중이었는데 『續日本紀』 大寶元年 三月壬辰(十九日)條에 "令僧弁紀還俗 代度一人 賜姓春日倉首名老 授追大壹"[269]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大寶元年(701) 3월 19일 칙명에 의해 환속하였다. 春日部麻呂와 마찬가지로 백제계라 생각된다.

• **置始東人**(오키소메노아즈마히토)

『日本書記』 孝德天皇 白雉五年二月條에 置始連大伯이 보이는데 連 姓을 사용하였으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置始連長谷(오키소메노무라지핫세)은 置始東人과 마찬가지로 連姓이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 **土理宣令**(토리노센료오)

星野五彦과 上田正昭는 도래인[270]이라고 하였고, 『万葉集歌人事典』에서는

---

266)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267) 佐伯有清 「憶良は天智朝の渡來人か」, 『國文學』(昭55. 11).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 30에서 재인용.
268) 大久間喜一郎 外 2人編, 『万葉集歌人事典』, p.117.
269) 續日本紀 前篇, p.10.
27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백제의 귀화계 씨족인가?[271]라고 하였다.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 **土師稻足**(하니시노이나타리)

天平八年丙子夏六月 遣使新羅國之時使 少判官의 한 사람인데 高橋庄次는 그 때의 少判官 중에 "이 使人만이 귀화계가 아니다"[272]고 하여 도래계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역시 渡倭人으로 백제계라고 할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葬式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土師氏는 葬式과 관련된 氏姓이었다고 생각된다.

土氏百村(토시노모모무라), **土師宿禰道良**(하니시노수쿠네미치요시), **土師宿禰水道(通)**(하니시노스쿠네미미치)도 백제계일 것이다.

• **波多朝臣小足**(하타노아소미오타리)

『新撰姓氏錄』 右京皇別上에 "八多朝臣 石川朝臣同祖 武內宿禰命之後也 日本紀合"[273]이라 하였다.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74]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石川 부분에서 살폈듯이 石川씨는 蘇我氏의 후손인 셈인데 蘇我의 조상은 백제로부터 일본에 건너간 蘇我滿智라고 한다면 石川氏는 백제계가 된다. 또 『新撰姓氏錄』 大和國諸蕃에서 "波多造 出自百濟國人佐布利智使王也"라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 **坂門人足**(사카토노히토타리)

星野五彦은 귀화인[275]이라 하였다. 渡倭人으로 보고자 한다.

• **坂上忌寸人長**(사카노우에노이미키히토오사)

忌寸 姓이어 渡倭人임을 알 수 있는데, 土屋文明은 "坂上忌寸은 후에 宿禰가 된 田村麿 등의 氏族으로 漢種이다."[276]고 하였고 『万葉集歌人事典』, 星野五彦도 漢의 귀화인[277]으로 보았다. 山本信三은 坂上은 阿知使主의 族姓으로 韓族

271) 大久間喜一郎 外 2人編, 『万葉集歌人事典』, pp.247-248.
272) 高橋庄次, 앞의 논문, p.48.
273) 佐伯有清, 앞의 책, pp.172-173.
274)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75) 星野五彦, 위의 논문, p.29.
276) 土屋文明, 『万葉集私注』 卷第五, p.15.
277) 大久間喜一郎 外 2人編, 『万葉集歌人事典』, p.170.

또는 準韓族[278]이라 보았다. 그리고 井上秀雄은

> 이처럼 奈良朝에서는 漢氏의 有力者는 律令官人이라도 유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奈良朝 末期의 延曆年間에는 일찍이 漢氏 坂上大忌寸과 文忌寸 등의 계보가 전해지고 있다. 즉 「續日本紀」 延曆4년(785) 6월조에서 坂上大忌寸의 祖上은 後漢의 靈帝의 曾孫 阿智王으로 되어 있다. 延曆10년(791) 4월조에서는 文忌寸의 조상을 漢의 高帝의 後裔 鷺의 자손인 王豹가 백제에 이주하여, 그 孫인 王仁이 日本에 도래했다고 한다. 이같은 생각은 그대로 『新撰姓氏錄』에 이어지고 있다. 『新撰姓氏錄』의 것을 系圖化하면 다음과 같다. 文宿禰와 坂上大宿禰의 경우는 중앙 귀족답게 중국의 왕실과 관련지어진 系圖가 조작되고 그 권위부여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79]

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新撰姓氏錄』 편찬시 조작된 것으로 원래는 백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板氏安麿**(한시노야스마로)

澤瀉久孝는 『續日本紀』 天平七年 九月條에 大史從六位下 板持連安麻呂라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280]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連 姓이므로 渡倭人이다.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81]이라 하였으나 출자를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渡倭人으로 보고자 한다.

• **河內王**(카후치노오호키미)

澤瀉久孝는 『日本書記』 天武天皇 朱鳥元年正月條에 신라의 金智祥을 접대하기 위하여 筑紫에 파견된 사람 중에 淨廣肆川內 王이라고 있으므로 그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282]고 하였다. 河內에 한인계가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과 신라 金智祥을 접대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아마도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78)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279) 井上秀雄, 앞의 논문, pp.74-75.

280)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五, p.130.

281)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82)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三, p.498.

• **海犬養宿祢岡麿**(아마노이누카이노스쿠네오카마로)

『新撰姓氏錄』右京神別下에 "海犬養 海神綿積命之後也"[283]라 하였고, 『日本書記』天武天皇 十三年十二月己卯(二日)에 海犬養連에 宿祢 姓을 내렸다[284]"고 하였다. 連 姓을 사용하였으므로 渡倭人이다.

그렇다면 **縣犬養橘宿禰三千代**(아가타노이누카이노타치바나노스쿠네미치요), **縣犬養娘子**(아가타노이누카이노오토메), **縣犬養宿禰吉男**(아가타노이누카이노스쿠네요시오), **縣犬養宿禰人上**(아가타노이누카이노스쿠네히토가미), **縣犬養宿禰持男**(아가타노이누카이노스쿠네모치오)도 모두 마찬가지로 渡倭人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刑部垂麿**(오사카베노타리마로)

刑部는 『新撰姓氏錄』右京諸蕃下에 "刑部 出自百濟國酒王也"[285]이라고 하였다. 河內國諸蕃 刑部造에서는 "出自吳國人李牟意彌也"[286]라고 하였다.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287]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阿知使主의 族姓. 刑部라고도 한다. 集에 이 사람 외에 刑部垂麿, 刑部三野, 刑部千國 등이 있다."[288]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따라서 刑部는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刑部志加麿(오사카베노시카마로), **刑部直三野**(오사카베노아타히미노), **刑部直千國**(오사카베노아타히치쿠니), **刑部虫麿**(오사카베노무시마로)를 星野五彦은 출자가 분명하지 않은 귀화인[289]으로 보았는데 刑部氏이므로 역시 백제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丸子連多麿**(마로코노무라지오호마로), **丸子連大歲**(마로코노무라지오호토시) 모두 連 姓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渡倭系이다.

그렇다면 丸子部佐壯(마로코베노스케오)도 마찬가지로 渡倭系일 것이다.

---

283) 佐伯有清, 앞의 책, p.236.
284) 大系 『日本書記』 下, p.467.
285) 佐伯有清, 앞의 책, p.303.
286) 佐伯有清, 위의 책, p.325.
287)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288)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289)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 **檜前舍人石前之妻**(히노쿠마노토네리이와사키가메)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290]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291]이라고 하였다. 한인계로 보고자 한다.

이상으로 『万葉集』의 한인계 작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萬葉集』작가들의 출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 제 계 : 角麿, 角朝臣廣弁, 葛井連, 葛井連廣成, 葛井連大成, 葛井連子老, 葛井連諸會, 葛井某, 境部宿禰老麻呂, 境部王, 高丘連河內, 高市連黑人, 軍王, 紀卿, 紀女郎, 紀朝臣男梶, 紀朝臣鹿人, 紀朝臣清人, 紀朝臣豊河, 吉田連宜, 吉田連老, 丹比麿, 丹比眞人屋主, 丹比眞人國人, 丹比眞人乙麿, 丹氏麿, 丹波大女娘子, 大石蓑麿, 大倭芳野, 大原眞人高安, 大原眞人今城, 大原眞人櫻井, 笠女郎, 笠朝臣金村, 笠沙彌, 馬史國人, 麻田連陽春, 巫部麻蘇娘子, 文忌寸馬養, 門部連石足, 門部王, 文室智努麻呂眞人, 物部古麿, 物部廣足, 物部刀自賣, 物部道足, 物部龍, 物部歲德, 物部眞根, 物部眞島, 物部秋持, 物部乎刀良, 史氏大原, 舍人吉年, 舍人娘子, 山口忌寸若麿, 山上臣, 山上憶良, 山田史君麿, 山田史土麿, 三方沙弥, 三野連石守, 三野岡麻呂, 上古麿, 石上朝臣堅魚, 石上卿, 石上乙麻呂, 石上朝臣宅嗣, 石川大夫, 石川郎女, 石川女郎, 石川夫人, 石川少郎, 石川朝臣廣成, 石川朝臣年足, 石川朝臣老夫, 石川朝臣水通, 石川朝臣足人, 石川賀係女郎, 雪連宅麻呂, 小野朝臣國堅, 小野氏淡理, 小野朝臣老, 粟田女娘子, 粟田大夫, 粟田女王, 柿本朝臣人麿, 安都扉娘子, 安都宿禰年足, 安宿奈登麿, 桉作村主益人, 鴨君足人, 野氏宿奈麿, 額田王, 余明軍, 緣達師, 宇努首男人, 羽栗, 六鯖麻呂, 忍坂部乙麿, 忍海部五百麿, 日下部使主三中, 日下部使主三中之父, 任生使主宇太麻呂, 長忌寸娘, 長忌寸意吉麿, 田口朝臣益人, 田口朝臣馬長, 田邊史福麿, 田邊秋庭, 田部忌寸櫟子, 田氏肥人, 田氏眞上, 調使首,

290)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291)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7.

調首淡海, 舟氏麻呂, 中臣部足國, 中臣女郎, 中臣朝臣東人, 中臣朝臣武良自, 中臣朝臣宅守, 中臣清麿, 秦間滿, 秦伊美吉石竹, 秦忌寸朝元, 秦忌寸八千嶋, 秦田麿, 秦許遍麿, 椎野連長年, 春日部麿, 春日王, 土理宣令, 土師稻足, 土氏百村, 土師宿禰道良, 土師宿禰水道(通), 波多朝臣小足, 坂上忌寸人長, 河內王, 刑部垂麿, 刑部志加麿, 刑部直三野, 刑部直千國, 刑部虫麿

고구려계 : 高麗朝臣福信, 高氏老, 高氏義通, 高氏海人, 高安大島, 高田女王, 消奈行文,

신 라 계 : 大藏忌寸麿, 薩妙觀 命婦

韓 人 系 : 忌部首黑麿, 忌部首, 內藏忌寸繩麻呂 磐余伊美吉諸君, 神社忌寸老麿, 依羅娘子, 張氏福子, 檜前舍人石前妻,

渡 倭 人 : 高橋朝臣, 高橋蟲麻呂, 藤井連, 尾張連某, 尾張少咋, 拔氣大首, 生石村主眞人, 小鯛王, 矢作部眞長, 阿倍朝臣繼麿, 阿倍朝臣繼麿 第二男, 阿倍朝臣老人, 阿倍 大夫, 阿氏奧嶋, 阿倍女郎, 安倍朝臣廣庭, 安倍朝臣沙弥麿, 安倍朝臣奧道, 安倍 朝臣子祖父, 安倍朝臣蟲麿, 安倍朝臣豐繼, 若櫻部朝臣君足, 椋椅部刀自賣, 椋椅部弟女, 椋椅部荒虫, 奄君諸立, 元仁, 茨田連沙彌麿, 丈部稻麿, 丈部山代, 丈 部与呂麿, 丈部龍麿, 丈部鳥, 丈部造人麿, 丈部足麿, 丈部足人, 丈部直大麿, 丈部眞麿, 丈部川相, 丈部黑當, 志斐嫗, 志氏大道, 置始東人, 置始連長谷, 坂門人足, 板氏安麿, 海犬養宿称岡麿, 縣犬養橘宿禰三千代, 縣犬養娘子, 縣犬養宿禰吉男, 縣犬養宿禰人上, 縣犬養宿禰持男, 丸子連多麿, 丸子連大歲,

3. 그 외의 작가들에 대한 가능성

星野五彦은 『万葉集』의 작가 중에서 황족이 약 16명 있으나 그것은 신분상 한 획을 긋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황족의 이름 중에는 한인계의 氏姓과의 관련성이 보이는 이름들이 있으므로 황족 중에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인정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일본의 제 42대 文武天皇은 신라의 문무대왕이며, 天武天皇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는 설까지 일본의 사학자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신라의 文武대왕이 唐과의 알력 속에 신라에서의 입지가 불리해지자 일본에 건너가 일본이 어수선한 틈을 타 한반도의 세력에 의해 文武天皇이 되었다고 한다. 문무천황은 일본에서 수수께끼의 천황으로, 사망한 나이가 문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續日本紀』에서 문무천황은 신라왕에게 여러번 편지를 보내는데 706년 11월 성덕여왕에게 보낸 편지는 마치 유서를 방불케 하며, 효소왕에게 보낸 편지에는 "추위에 몸조심하고" 등등의 내용이 보여 있어 손자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엿보인다. 또 700년 11월 신라사신이 문무천황에게 母王 돌아가셨다고 전하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문무천황의 母이거나 왕비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처럼 문무천황이 바로 신라의 문무천황이라면 『万葉集』의 문무천황의 작품은 바로 신라의 작품이 될 것이다.

또 1972년 3월 21일 飛鳥에서 발굴된 高塚古墳에 매장된 사람은 연령이 30세에서 70세에 살해되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주인공은 고구려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고구려 고분에서만 보이는 사신도가 보이고 4명의 여성 그림이 있는데 고구려 복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일대에 고구려인들이 집단적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고분의 주인공이 바로 천무천황일 것이라는 설을 조심스럽게 펴고 있는 것[292]이다.

고대사에 있어서의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일본천황 중에서도 한인계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며 황족 중에 한인계는 더욱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황족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姓氏 중에서도 한인계일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萬葉集』의 한인계 작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92) 1998년 2월 23일 밤, 대구 mbc방송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Ⅲ. 結 論

이상 위에서 상대문학 자료의 영성함을 보완하여 우리 문학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万葉集』의 한인계 작가를 추출하여 보았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은 완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중간과정으로 본 논문에서 다룬 이외의 작가 중에서도 한인계일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혹시 본 논문에서 한인계 작가로 본 사람 중에서도 출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검증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新撰姓氏錄』 편찬 시기에 당나라 중심의 외교 관계가 백제계를 漢系로 造作하였듯이 『新撰姓氏錄』에서나 그 외에 백제계라고 되어 있는 것도 백제 중심의 외교 관계에서 신라·고구려를 모두 백제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앞으로도 계속 첨삭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본고에서 정리한 渡倭人 작가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万葉集』 작가는 총 500 여명인데, 그 중 본 논문에서 여러 연구자의 설과 그외 『新撰姓氏錄』의 기록 등으로 미루어 도래계라고 추정된 작가는 일단 모두 215명이었다. 이 중에서 한인계로 추정된 자는 모두 161명이었으며, 출자가 분명하지 않은 渡倭 작가는 54명이었다.

둘째, 한인계 작가 중에서 백제계로 추정되는 작가는 모두 144명이었으며 고구려계가 7명, 신라계가 2명이었다. 그리고 한인계이지만 구체적인 출자를 알 수 없는 작가가 8명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出自를 알 수 없어 渡倭人이라고만 한 작가 중에서도 앞으로 검증을 하면 한인계는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다.

셋째, 僞倭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가능한 한 하나의 자료라도 있으면 한인계로 보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황족과,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도 僞倭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면 한인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넷째, 『新撰姓氏錄』이 중국 지향적인 상황에서 편찬된 것인 만큼 백제계를 비롯한 한인계를 漢系로 조작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撰姓氏錄』에 백제계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한인계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

계를 漢系라고 조작한 것과 마찬 가지로 백제계라고 되어 있는 작가들도 백제와의 외교관계가 중심이 된 시대의 반영임을 생각한다면 이 중에는 고구려 신라계도 적지 않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출자도 다시 면밀히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다섯째, 한인계 작가 중에서도 도래인 몇 세인지를 구분하여 일본에의 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국적인 동질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선별하는 작업일 것이다. 일본에 도래하여 만약 2,300년이 지난 氏族의 경우는 그 문학에서 엄밀하게 한국적인 성격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작업도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